

---

제3회 학생인권토론회

# ‘인권 존중의 학생문화’

- 상벌점 제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





# 식순

일정	내 용	
11:00~11:10	접수 및 안내	
11:10~11:30	<p>인 사 말 : 김승환(전라북도교육감)</p> <p>취지 설명 : 강은옥(인권옹호관)</p> <p>학생인권의 날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소개</p>	
11:30~13:00 [토론 및 질의]	사회	홍초희(전북인권교육센터 활동가)
	토론1팀 (인권팀)	주현(순창제일고), 이민정(영선중) : 상벌점제 폐지 찬성
	토론2팀 (존중팀)	강현석(군산중앙고), 서은빈(양현고) : 상벌점제 폐지 반대
	토론3팀 (배려팀)	고결(군산제일고), 김형준(군산제일고) : 상벌점제 폐지 찬성
	토론4팀 (공감팀)	양은영(부안여고), 심서린(부안여고) : 상벌점제 폐지 반대
13:00	정리 및 폐회	



---

# 토론1팀(인권팀)

---

## 상벌점 제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주 현 | 순창제일고등학교 2학년

이민정 | 영선중학교 2학년



## 1.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입장은?

상벌점제의 대한 저희의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다닐 때에는 상벌점제가 운영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벌점제가 운영이 되는 학교를 현재 재학 중입니다.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안 되는 학교를 둘 다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누구보다 상벌점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벌점제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 교사들의 편리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생각이됩니다. 저희는 상벌점제도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 2. 상벌점제 학교에서 왜 도입한 것인가?

상벌점제 도입 이유에는 잘못을 한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기보다는 별점 부여와 순화교육 , 상담을 통하여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하고 학생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고 상점을 줌으로서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교육적인 길로 선도하고 올바른 학교 문화를 조성해나갈수 있는 방안으로 상벌점제가 도입된 우선적인 이유이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체벌을 근절하고 교육적인 방안으로 학생들을 선도하자 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로 부정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상벌점제를 진행함으로써 일명 ‘문제 학생 속아내기’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별점을 줌으로서 학생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며 통제를 하기 위한 통일적인 방안으로 느껴지며 상점을 줌으로서 학생들에게 경쟁심을 심어주기 위함으로 저는 생각이됩니다.

일반학생들에게도 전혀 상벌점제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학생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정확히 “ 상벌점제 왜 도입되었다고 생각해 ? 학교에? ” 라고 약25

명의 학생에게 다양하게 랜덤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단한명도 위에 상벌점제의 도입이유처럼 알고 있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학생들은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몰라 ” “ 벌 줄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 체벌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이상벌점제는 학생들에게 전혀 그런 식으로 와 닿지도 않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 이지요.

### 3. 상벌점제 교사들은 얼마나 어떻게 활용 하고 있는가?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의 바른 학교생활을 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좋게 말하면 상벌점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위협 , 협박을 하며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벌점을 받을 항목들은 이러합니다.

번호	항목 (코드)	위반내용	점수
1	용의 (01)	인사를 하지 않거나 무례한 언행	1
2		실내에서 전자오락	
3		실내에서 뛰거나 과격한 장난	
4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 섭취, 학업에 방해되는 서적이나 물건 반입	
5		가방 없이 등교하는 경우	
6		티셔츠 규정위반, 풀 바지 착용, 명찰, 뱃지, 혁대 미착용, 사제모자 착용	2
7		두발규정 위반(염색, 파마 등 특이 형태)	5
8		교복 미착용, 장신구(귀고리, 목걸이, 반지 등) 착용,	3
9		등 하교시 슬리퍼 착용	
10	근태 (02)	등교시간에 지각한 경우 (08:10분 이후)	2
11		수업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실, 지각, 마침, 종전 퇴실)	
12		무단외출, 무단결과, 무단조퇴	
13		수업준비 불량, 학습태도불량(경고 1-2회 후), 교육 활동 중 음식 먹기, 껌 씹기	
14		책임 물이행(청소, 주변활동 등)	5
15		쓰레기 무단투기, 실내 침 뱉기, 불법광고부착배부 등 5점	
16		수업 중 전자기기 사용(충전 행위 포함)	
17		오락, 음란, 퇴폐 사이트 접속, 물건(서적, CD 기기 등 소지)	



번호	항목 (코드)	위반내용	점수
18	퇴폐 (03)	출입제한구역 음주 장소 출입	5
19		환각제 및 유사 도구 소지	
20		학교 시설물 훼손 및 낙서, 수업진행 방해, 기타 시청각 기자재 활용 위반 등	
21	준법 (04)	자가용, 택시 이용 교내로 등하교(교문 밖 100m 이상 벗어난 지점에서 걸어올 것)	5
22		전체집합시 태도가 불량한 경우(조회, 줄, 입학식 등)	
23		공중도덕을 위반한 경우	
24		정당한 이유 없이 교사의 교육적 지시 불이행	
25		월담 월장한 경우	
26		도박(짬짬이, 판치기, 뽕치기 등)을 한 경우	
27		실내에서 소란스러운 행동을 한 경우(말뚝박기, 공놀이 등)	
28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교내)	
29		매점과 교실 이외에서의 취식 행위	
30	수업 (05)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하고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경우	2
31	기타 (06)	면학분위기를 훼손하는 이성간의 신체접촉 및 거짓말	7
32		상습적 교칙 위반자	
33		교외에서 민원을 야기한자	
34		유언비어로 명예훼손	

※ 참고자료 : ○○고등학교 벌점표

이러한 벌점표는 더욱 황당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등하교시 슬리퍼 사용, 껌을 씹기, 실내에서 전자오락 등 굉장히 사소한 것 까지 벌점이라는 비인권적인 점수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점수로만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무언가를 시키시고 조금 거부하면 일명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는 벌점 항목으로 학생들에게 위협을 항상 줍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만약 가방을 안가지고 왔을 시에 얘기합니다. “야 너 가방 왜 안 갖고 왔어 벌점 받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방을 안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도 모른 채 그저 벌점이라는 점수 하나 때문에 가방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인식됩니다. 그저 항상 선생님께서 “가방안가지고 왔으니 벌점, 염색했으니 벌점, 교사 지시 불이행 벌점 ” 이라고만 말씀들을 하

시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과연 이런 것 들이 교육적인 선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저 아주 쉽게 선생님들께서 수많은 학생들을 간편하게 하나의 점수로 통제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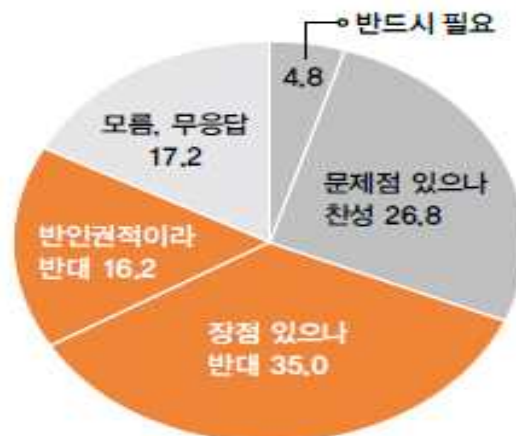
#### 4. 상벌점제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상벌점제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벌점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벌점 이 무서워 잘못된 행동을 자제하거나 상점을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부분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벌점이 무서워서 염색을 안 한다거나 지각을 하지 않는다거나 교복을 단정히 입고 온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있고 없고 의 차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수가 없이 인간적이고 서로 상호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대안학교를 다니며 경험을 전부 해보았습니다. 물론 선생님과 학생 심지어 학부모님들 까지도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은 질문 9번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5. 상벌점제에 대하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선 경기도 중고생 7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생들 51.2% 학생들은 이미 상벌점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 상벌점제를 찬성하는 학생은 31.6% 이고 그중 26.8%가 상벌점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큰 권력이 나오는 건 교사들이 아니라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학생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 ① 상벌점을 주는 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경우 선생님들의 그때그때 마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점과 벌점을 줄때가 있고 그렇지 아니할 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마다 보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생님들마다 상벌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알고 인위적으로 받아들여 선생님들 이 누가 자신의 앞에 있냐에 따라 하는 행동이 틀려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 ② 상벌점제는 꼭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상벌점제가 없으면 바로 징계위원회로 넘어 가게 된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전혀 교육적인 의도는 전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③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점수로 학생들을 전부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외로 원래 목적인 잘못을 한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기보다는 벌점부여와 순화교육, 상담을 통하여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하고 학생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고 상점을 줌으로서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교육적인 길로 선도하고 올바른 학교 문화를 조성해나갈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조사내용은 저의 고등학교인 순창제일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타 학교등을 조사하지 못한 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 6. 학교에서 실시되는 상벌점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로 학교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배우러 오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

한 곳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소통이 사라지고 점수로 학생들을 전부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소통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의 형평성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교사가 좋게 본 아이에게는 상점은 많이 주고 별점은 되도록 주지 않으려 할 것이며 반대로 평소 좋게 보지 않던 아이일명 ‘문제아’ 라고 불리는 아이들에겐 사소한 것 하나하나마다 별점을 주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개개인마다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학생들에게 상별점을 주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별점제는 분명히 학생들을 교육적인 방안으로 선도하는 것으로 도입이 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고 있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별점 누락으로 퇴학을 당한학생이 폭력사건으로 퇴학당한 학생들보다 수가 더 많았다고 그룹니다. 이 내용은 2011년도에 채널A에서 박서운 기자님께서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구할 수 없는 관계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복학했다가 10월에 퇴학 처분을 받아 자퇴한 김 모 군. 5개월 만에 별점 40점을 넘게 받았습니다.

[김00/별점 누적으로 퇴학]

"복장(위반)으로 학교 등교할 때마다 맨날 (별점) 받고. 한 1~2분 지각해도 별점 받고."

흡연했다는 누명도 쓰면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00/별점 누적으로 퇴학]

"동급생들이 흡연을 했는데 그 날은 제가 안 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많이 화 나서서 별점을 많이 주시고 해서 그것 때문에 퇴학을 당했어요."

학교 측은 김 군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 별점을 많이 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00 학교 관계자]

"여러 선생님께서 00이에 대한 별점을 아마 부여해준 것 같아요.한꺼번에 별점을 부여하면, 그쵸. 하루에 20점이 될 수도 있고, 하루에 40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억울한 사건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적인 방안은커녕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제도가 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별점제도입니다.

## 7. 상별점제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네 저희는 그 점이 가장 큰 상별점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별점제는 굉장히 반인권적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몇몇의 문제아라고 불리우는 학생들은 틀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른들은 틀렸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학생들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여러 명의 학생들 저와 저기 강현석 위원님과도 다릅니다. 모두 다른 개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학생들을 상별점제라는 점수표로 평가한다는 것 학교라는 배움이 있고 소통이 있어야하는 곳에서 학생들을 선생님이 점수를 매기고 점수로 학생들을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그저 ‘학생이니까’ 라는 이유가 맞는 이유일까요?

상별점제도는 이른바 “낙인효과”를 불러옵니다. 예를 들면 “이 학생은 별점 30점짜리 아이입니다”라는 평을 들었을 때, 그 학생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쳐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학생이 매우 모범적이지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각을 하는 상황이라서 별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다른 모든 생활이나, 성적, 교우 관계 등에서 모범적인 학생이라 할지라도 작은 생활습관이나 실수로 인해 별점을 누적하게 될 경우, 그 학생은 “별점학생”의 오명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상별점제는 학생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학생에 대해 판단하게 만드는 그릇된 편견이자 잣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인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참여위원회도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권적이고 서로 소통이 있는 방안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됩니다.

## 8. 상별점제 현행대로 유지, 보완, 폐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별점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별점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체벌의 근절” 인데, 현재 상벌점제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벌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았듯이 학생들 중 50% 이상이 상벌점제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진행한 한 조사로 학생의 약 50%가 계속 체벌에 대한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일탈 행동에 대한 제재와, 체벌의 근절이라는 본래 상벌점제의 의도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일탈행동 등을 막을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이고,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상벌점제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9. 상벌점제를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학생을 제재할 도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의 상벌점제도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국한되지 않고, 점수가 계속 누적되고 지속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되, 효과적으로 학생의 일탈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는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당시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에 따른 보상행동을 했을 때는 그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일시적 자유의 제한 또는 자발적 봉사활동”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각을 했을 때 운동장을 한 바퀴 돌거나 쉬는 시간 10분을 누리지 못하고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규칙 등이 일시적 자유 제한에 해당합니다.

또는, 교실 청소를 하루 동안 책임진다던가, 식당에서 급식 도우미를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자발적 봉사활동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이 규제와 봉사 중에서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 일탈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잘못에 대

한 반성도 하고, 그에 따른 보상행위를 함으로써 좀 더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학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올바른 제지가 내려짐으로서 선생님과 학생의 소통, 사제지간의 배움. 학교는 수학, 국어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깨닫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시범을 보이고 있는 ‘자치 법정’ 등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 법정 많이 들 알고 계실 것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 중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어 잘못을 한 학생에게 반성을 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인데요.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정이라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반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정이 자치법정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벌점제를 없애고 이러한 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멋진 전북 학생으로 커가는 제도적 계기를 마련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10.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 학교, 학생 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상벌점제도와 관련하여

인권이라 함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입니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 선진적인 지역입니다.

교육청에서 이토록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학생 인권을 학교가 무시하거나 또는 학생 스스로 남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SNS나 email 을 통해 전북 학생인권의 현실에 대해 알리고,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혹시라도 학생 인권의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학교를 통하지 않더라도 바로 교육청에 보고될 수 있는 hot line 또는 SNS(facebook, blog etc.)가 요구됩니다.

학교에서도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학생을 더욱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학생인권을 남용한다거나, 선생님들께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교칙을 어기는 행위 등은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상벌점제도 과연 저희는 굳이 있어야 되는 제도인가 의문을 가집니다. 학교의 중요한 제도는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사에서는 과반수이상이 원하지 않고 있는 이 상벌점제, 저희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 선생님들께서 인정해주시고 존중해주시는 우리의 학생인권은 우리 스스로 지킬 때 빛나는 법입니다.

자주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멋진 전북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토론2팀(존중팀)

---

## 상벌점 제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강현석 | 군산중앙고등학교 2학년

서은빈 | 양현고등학교 2학년



## 1.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입장은?

저희 팀에서는 상벌점제 운영에 찬성, 즉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 2. 상벌점제 학교에서 왜 도입한 것인가?

상벌점제는 교내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을 근절하면서 학생들을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해 2010년 3월 시행된 제도로 잘못된 학생을 체벌하는 대신 벌점 부여와 상담과 순화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며, 칭찬받을 행동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선생님들은 체벌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잘잘못을 관리할 방법을 잃었고, 특히 중 고등학교는 담임 선생님들이 모두 직접 상담과 순화 교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상벌점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 3. 상벌점제 교사들은 얼마나 어떻게 활용 하고 있는가?

학생의 기본 생활지도와 학습 분위기 형성을 위해 주로 상벌점제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일부 교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일부 교사는 상벌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또한 상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벌점상계용으로만 부여하고 기타 선행 등의 사유로는 상점을 잘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만일 상벌점제가 폐지된다면 다른 학생 통제 방법이 마땅치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

## 4. 상벌점제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상벌점제를 시행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우선 긍정적 효과는 규칙을 준수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탈선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일종의 지도 방법이다. 또한, 학생들이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면학적인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별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이 한 잘못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하나의 예방 책 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선 등교나 하교 시에 하는 복장검사로 인해 교복차림이 단정해 지고 평소에도 행동이 반듯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상점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더 모범적으로 하게 된다. 또한 별점을 받게 되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고치려고 노력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 되었음을 아는 것 자체가 행동을 바꾸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행을 하여 상점을 받는 등 학생의 봉사정신을 되 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부정적 효과로는 상 별점으로만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는 것 이다, 이로 인해 실수로 별점을 받은 학생이 안 좋은 이미지로 남기는 등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사가 학생에게 별점을 부여할 시 학생들이 짜증감과 스트레스를 발생 하게 되고 교사가 판단을 잘못하여 실수로 별점을 준 경우나 잘못된 관계를 상담 없이 별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상점을 받기 위한 의미 없는 선행이 증가하게 된다.

## 5. 상별점제에 대하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로 극과 극을 달린다.

상별점제가 좋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이들의 행동이 개선되고 수업 분위기가 잡히고, 교사들의 인권(교권)이 보장되고, 학생들의 통제 시에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역으로 상별점제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 하지만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긍정적이게 생각한다. 내신이나 태도 점수를 깎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하는 학생들, 중, 고등학생은 미성년자이면서 청소년이고 성숙과의 관계가 아직 잘 정립되지 못한 저희에게 상별점제란 잘못된 제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상점

이 많으면 상을 주겠다는 것처럼 무언가 보상이 걸린 상점제도는 학생들의 자의성을 위배시키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상별점제로 인하여 학생들이 억압감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견이 있는 등,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별점제에 대하여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 6. 학교에서 실시되는 상별점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①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개인의 상별점 기록이 리셋이 되어 학생들이 상별점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
- ② 세분화 되지 않은 상별점 기준으로 인하여 애매한 경우 상별점을 부여하기 힘들다.
- ③ 상점과 별점의 비율이 대등하지 않고 별점에 더 많은 점수가 편재되어 있는 이유로 별점보다 상점을 받기가 매우 힘들다.
- ④ 상별점제 규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준다.
- ⑤ 선생님들이 상별점제에 대한 평가만으로 학생들을 편견 할 수 있다.
- ⑥ 상점제도가 존재함으로서 마음에도 없는 수박 겉핥기식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이 많다.
- ⑦ 선도부, 교사가 별점 부여 자격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가지며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 ⑧ 상별점제가 존재하는 학교이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거 같지가 않다.
- ⑨ 상점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심지어는 우정을 파괴하는 사례도 드물게 발생하기도 한다.
- ⑩. 사건발생 직후 바로 별점이나 상점을 주는 것 에 대한 판단기준이 학교마다 애매하고 대부분 교사의 판단에 맡기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제도 이다 자칫하면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불공평한 행위, 비논리적인 행위로 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⑪ 상점은 1일 최대 부여 횟수 및 최대 부여 점수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별점은 1일 최대 부여횟수 및 점수 제한이 없어 서로 형편성이 맞지 않다.

## 7. 상별점제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우선 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교육이란 더 많은 경험이나 배움을 가진 사람이 아직 부족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성숙 자가 미성숙자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상별점제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 또 다르게 보면 인권침해가 아니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의 인권만을 논하다 보면 당연히 선생님의 인권이 무너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의 인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 체벌을 없앴지만 선생님의 인권을 위해서 상별점 제도는 유지할 하되 아래와 같은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

- 1) 상별점 결과만으로 학생들을 판단하지 말자.
- 2) 상별점 결과를 가지고 생활기록부 반영이 특정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
- 3) 전체 학생 상별점 현황을 확인용이라도 절대로 모두가 볼 수 없게 교실이나 게시판에 부착하지 말고 자신의 점수는 자신만 알 수 있도록 하는 확인 방법을 거치자.
- 4) 권력남용 하여 지나치게 상 별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

## 8. 상별점제 현행대로 유지, 보완, 폐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상황에서는 상별점제를 유지하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규칙이 학교에서도 존재하고 학생들은 그 규칙 내에서 생활해야할 의무가 있다. 현재 상별점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했던 생활지도가 상별점제 폐지로 인하여 생활지도시 크나 큰 어려움이 생기고 이로 인해 학교의 질서는 어지러워짐과 동시에 면학적인 학습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 학교의 이미지도 추락하게 되는 등 여러 악순환이 연달아 발생 하게 된다.

하지만 토론 6번 내용과 같이 현 상별점제를 그대로 유지할 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할 것이 틀림없다, 예를 들면 대다수의 학교가 말이 상별

점제이지 별점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고 별점을 받는 것 보다 상점을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의견과 별점항목은 세분화 되어 애매한 내용이 거의 없이 바로 별점부여가 가능하지만, 그에 비해 상점항목은 세분화 되지 않은 항목으로 인하여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할시 부여상점 부여를 포기하거나 대충 아무항목에 적용시키는 등 상별점제의 상점의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 등 상별점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점도 부여하도록 하는 보완과정을 거치는 등 여러 보완 과정이 필요하다.

아마 모든 문제점의 내용을 보완 하지 않겠지만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상 별점제를 실시 할 시에는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상별점제가 운영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 9. 상별점제를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별점제를 대체 할 방법으로 나에게 쓰는 편지 작성을 통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진 뒤 편지를 쓴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의 꾸준한 인내심으로 상담을 통하여 왜 잘못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서 별점을 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독려한다. 이때 교사는 업무 등의 핑계로 사건을 조금이나마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일방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상담할 시 학생에게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반드시 꼭 교사와 학생간의 긴 의사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 잘못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는 등의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는다면 현재 별점제와 같은 결말이 나올 것이다.

상점제를 대체할 방법으로는 초콜릿이나 사탕 등의 소정의 간식 부여하거나 커피전문점 쿠폰처럼 쿠폰을 찍어서 일정 개수 이상 도달 시 학용품 등의 선물 지급을 하면서 칭찬을 해준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가 새로 생기던지

우선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벌점제와 같은 결말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선생님들의 노력이나 제도적 측면 외에도 결국 모든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나오더라도 학생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 10.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 학교, 학생 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상벌점제도와 관련하여 ‘)

현 시행 되고 있는 상벌점제는 문제도 많지만 역시 없으면 불편한 양면성을 가진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바로 없애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나중엔 상벌점제가 없어지더라도 인권 우호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인권우호적인 조례를 개발하며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서로 지속적인 협의회를 통하여 인권 우호적인 학칙을 제정 및 개정 하면서 학생들은 교권을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가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모 학교의 별점 부여 대상 기준>

번호	상 점 항 목	점수
1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는 학생	2
2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는 학생	2
3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학생	2
4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	2
5	예의가 바르고 인사를 잘하는 학생	2
6	쓰레기를 줍는 학생	2
7	기타 학생으로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	2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모 학교의 별점 부여 대상 기준>

번호	별 점 항 목	점수
1	교복 및 명찰 미착용, 규정에 어긋난 두발, 화장, 장신구 착용	1
2	침 또는 껌을 씹거나 뱉는 학생, 수업중 음식물을 먹는 경우, 머리염색, 애정표현	2
3	교실 내 컴퓨터 및 TV를 무단 사용하는 학생	1
4	실내에서 위험한 물건(공, 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놀이를 하는 학생	1
5	사행성 놀이, 교직원 화장실 출입, 쓰레기 및 종이비행기 투척	1
6	수업 중에 수업을 방해(큰소리, 돌아다님, 허락없이 나감 등)를 하는 학생-상점으로 상쇄 할 수 없음(성찰교실 무조건적 입실)	2
7	실내화 등교시 2회 미지참, 실내화 실외출입, 실외화 실내출입	1
8	외출증 없이 외출하는 학생, 산소방 무단 출입, 무단결과, 교내·외 배회 학생	2
9	급식실 규정(새치기, 컵 및 음식물 반출 등)을 어기는 학생, 등교 후 가방 매고 다니는 학생, 담요 교실 밖에서 사용한 학생	1
10	학교의 기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학생, 휴대폰 소지 및 사용 - 1회 적발 1주, 2회 적발 2주 등 학교보관 점차 늘림	2
11	기타 교칙 위반 및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 5
12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불손한 언행이나 행동을 하는 학생, 음란물 시청 및 유포, 유언비어 유포, 사소한 일로 언론, 매체, 교육기관 등에 전화, 투서, 인터넷 등을 하는 행위, 기타 선도위원회에 회부 될 행동을 하는 학생	1 ~ 5 또는 선도위 위원회 회부



---

# 토론3팀(배려팀)

---

## 상벌점 제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고 결 | 군산제일고등학교 3학년

김형준 | 군산제일고등학교 3학년



## 1.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입장은?

저희는 학생 지도를 위해 교내에서 실시되는 상벌점제의 운영에 대해서 학생의 인권침해에 관련한 많은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그런 마일리지제도(일명 학생 상벌점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찬성한다.

## 2. 상벌점제 학교에서 왜 도입한 것인가?

학생들에게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상점을 부여하여 칭찬과 격려를 통해 교육적 선도와 올바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체벌을 근절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 3. 상벌점제 교사들은 얼마나 어떻게 활용 하고 있는가?

좋은교사운동 회원 55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4%는 상벌점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40%는 약간 활용하고 있으며, 31%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고, 15%는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

▲ 좋은교사운동 〈상벌점제,대안을찾는다〉 p.4

<표 21> 문항 2.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한 경험 유무

구분		교사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있다(예)	22명 (73.0%)
	②없다(아니요)	8명 (27.0%)
합계		100.0%

▲ 이승우 외 3명, 학생 상벌점제의 대안 수립에 관한 고찰 -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와 재학생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p22.

<표 22> 문항 3. 학생에게 별점을 부여한 경험 유무

구분		교사
학생에게 별점을 부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예)	23명 (77.0%)
	없다(아니요)	7명 (23.0%)
합계		100.0%

▲ 이승우 외 3명, 학생 상벌점제의 대안 수립에 관한 고찰 -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와 재학생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p23.

위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많은 수의 선생님들이 상벌점제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수 있었지만 저희학교 선생님들은 대체로 상벌점제를 많이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상벌점제를 활용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용의복장검사를 명목으로 별점을 부과하고 지속적인 지각이나 교사들에게 언행불량에 대해 별점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벌점제도가 학생 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벌점제도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상벌점제도를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던 선생님들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했고 학생 통제의 효과가 높지 않았으면 동료 교사들도 소극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용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 상벌점제도를 활용하고 계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지도를 위해 체벌이나 상벌점 부과 보다는 학생상담과 설득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직 사회 내에서 상벌점제도에 대한 문제들이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 상벌점제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4. 상벌점제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상벌점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가에 대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48%), 주로 벌점을 받은 응답자와 주로 상점을 받은 응답자의 긍정적 응답의 편차는 15% 대 50% 정도이다. 부정적 응답의 경우는 33% 대 6%로 나왔다.

▲ 좋은교사운동 〈상벌점제,대안을찾는다〉 - 전국의 중학교학생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p.5

<표 23> 문항 4. 학생 상벌점제의 효과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구분		교사
학생 상벌점제가 생활지도 및 질서유지에 있어서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0명 (0%)
	②효과를 보고 있다	13명 (43.0%)
	③적은 효과를 보고 있다	17명 (57.0%)
	④효과를 거의 못 보고 있다	0명 (0%)
합계		100.0%

▲ 이승우 외 3명, 학생 상벌점제의 대안 수립에 관한 고찰 -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와 재학생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p23

<표 15> 문항 7. 학생 상벌점제의 효과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구분		학생
학생 상벌점제가 생활지도 및 질서유지에 있어서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큰 효과를 보고 있다	2명 (1.25%)
	②효과를 보고 있다	4명 (2.5%)
	③적은 효과를 보고 있다	36명 (31.25%)
	④효과를 거의 못 보고 있다	78명 (65.0%)
합계		100.0%

▲ 이승우 외 3명, 학생 상벌점제의 대안 수립에 관한 고찰 -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와 재학생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p18

좋은교사운동의 조사와 제일고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상별점제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전국의 중학교학생 5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별점제도가 실시된 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48%였습니다.

또한 제일고등학교 재학생들의 65%가 상별점제제도가 효과를 거의 못보고 있다고 응답했고 31.25%의 학생들이 적은효과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상별점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별점제의 유무에 대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상별점의 연 단위 소멸로 인해 학생들에게 경각심이나 보상심리를 일깨우기 힘들고 이로 인해 행동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상별점이란 수단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토대로 학생 상별점제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 5. 상별점제에 대하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상별점제도의 가장 최근 조사인 경기교육연구원의 경기도교육종단연구 1~3차년도(2012~2014)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중고교생 7996명을 대상으로 3년간 상별점제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별점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2012년 45.6%, 2013년 51.7%, 2014년 57.4%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학생 상별점제를 폐지했고 전라북도 교육청 또한 2016년부터 학생 상별점제의 폐지공지를 내린바 있다.

경기교육연구원의 경기도교육종단연구에 따르면 '상별점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응답이 2012년에 45.6% 2013년에 51.7% 2014년에 57.4%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상별점제가 생활지도 및 질서유지에 있어서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교내 상별점 기준에 따른 벌점 부과가 아닌 교사들의 개인적이고 주관적



인 감정으로 인한 벌점부과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상벌점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대상으로 삼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교사운동이 전국의 중학교학생 5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관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상벌점제로 인한 짜증과 스트레스가 많았다. 교사들이 너무 사소한 것들까지 참견하는 식으로 지나치게 벌점을 남발하고 있다. 기준자체가 불합리 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벌점을 받는다. 상점에는 인색하고 벌점은 과도하다. 상벌점제도가 실시되어도 아이들은 크게 반성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 점수로 평가 받는 것 자체가 싫다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 6. 학교에서 실시되는 상벌점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째. 점수화를 통한 학생지도의 문제점이다. 올바른 학생지도를 위해 도입된 상벌점제는 '점수'로써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합니다. 이때 점수는 가시적인 보상인데 문제는 그런 보상 시스템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정한 교육적 의의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상벌점제는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모범생인 아이가 있는데, 형편상 학교와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 지각을 자주하게 되어 많은 벌점을 받게 된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학생의 형편을 잘 모르는 교사들은 이 학생이 벌점이 많다는 소식만을 접하게 된다면 이 아이를 벌점이 많은 나쁜 아이로만 간주하게 되는 오류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상벌점제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반성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벌점이 있으면 교내봉사로 벌점을 상쇄해주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한 봉사가 아닌 징계를 피하기 위한, 혹은 상점을 받기위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벌점이 있는 아이들은 “뭘 봉사 며칠

하면 별점 없어지니까 괜찮아” 라는 말을 하며 실질적인 반성을 하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벌점제는 이중처벌을 실시합니다. 이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행위에 대해 별점을 부과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별점은 나중에 학생들에게 봉사 및 선도 교육을 시행하는 근거로서 사용됩니다. 즉 상벌점제는 같은 잘못에 대해 여러 번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7. 상벌점제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상벌점제도의 예로 두발규정, 용의복장제도에 관한 별점기준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학생들에게 별점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 즉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자율성이 있다, 하지만 학교 내의 기준, 혹은 학생은 단정해야한다는 교사들의 인식 아래 하에 학생들의 자율성은 처참히 무시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8. 상벌점제 현행대로 유지, 보완, 폐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체벌을 근절하자는 실질적인 취지로 만들어진 교내 상벌점제도 하지만 지금도 체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내 상벌점제도는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학생들의 인권(자율성)을 침해할 뿐 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을 제공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를 제공 할 수 있다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해서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만 사용이 된다면 이는 학생들과의 갈등을 더욱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교내 상벌점제 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바입니다.

## 9. 상벌점제를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상벌점제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학생들과 교사의 지속적인 대면상담을 기반으로 한 생활지도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행위에 대해 상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학생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를 좁혀 학생과 교사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 10.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 학교, 학생 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상벌점제도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율성(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생활지도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교육청의 입장에서 처벌위주의 생활지도가 아닌 체계적인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내에 교사와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대면상담을 할 수 있는 상호 평등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는 처벌 위주가 아닌 보상체계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보상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교칙 준수를 유도해야하고 학생들이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학생들은 교사와의 지속적인 대면상담을 통해서 학교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토론4팀(공감팀)

---

## 상벌점 제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양은영 | 부안여자고등학교 2학년

심서린 | 부안여자고등학교 2학년



## 1.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입장은?

저희는 상벌점제가 학생들에게 체벌 대신 적용되는 최적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벌점제가 시행 되면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를 유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교내에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상벌점제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 2. 상벌점제 학교에서 왜 도입한 것인가?

2010년 10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하여 2013년 7월 12일 전라북도교육청까지 학생 인권 조례라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체벌, 강요 등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자치법규로 제정되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선생님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이라는 소위 상벌점제라고 불리는 제도를 2010년 3월 서울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20곳 그리고 중·고등학교 각 45곳씩 총 110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시행하는 등 여러 교육청의 시행을 통해 많은 학교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3. 상벌점제 교사들은 얼마나 어떻게 활용 하고 있는가?

저희는 작년까지 상벌점제를 실시했었던 중학교 선생님들 10분께 상벌점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실제로 학생들에게 상벌점제를 부여할 때 주로 어떤 항목으로 부여 했는지 여쭙어 보았는데요.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체벌이 금지된 지금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별점을 주고 수업에 열중한 학생들은 상점을 주었더니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자제 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라며 상벌점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 “학교에서 인권 조례 이후 정한 교칙을 기반으로 하여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별점을 부과하였더니 학생들이 학교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견을 통해 상벌점제는 체벌을 대체한 교육지도 시스템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4. 상벌점제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상벌점제의 기능중 하나가 상점 또는 별점을 받을 경우 학생 본인뿐 아니라 학부모한테도 안내 문자가 오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그 학생을 지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계속 해서 수업을 방해 한다면 선생님은 별점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점 문자를 받은 학부모는 그 학생을 지적하게 되고 학생은 수업에 방해 되는 행동을 자제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선생님께 지적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신의 자녀가 지적을 받는다면 그 지적에 대하여 신경을 쓸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학부모의 지적을 신경 쓰지 않고 학교 규정을 어기는 학생들은 별점을 받게 되고 일정 별점이 쌓이면 교내 봉사 또는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학교 규정을 잘 지키는 학생은 상점을 주고 일정 상점이 모이면 포상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체벌적인 교육 지도를 대체 하여 좀 더 합리적인 교내 생활지도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5. 상벌점제에 대하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희는 상벌점제를 실시하는 학교에 재학했던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벌점제는 폐지되어야하는가? 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총 답변자 50명중 45명이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학생들이 통제가 불가능해져 학교가 혼란스러워 질것 같다.’ 는 의견이었고(참고 자료 설문 조사한 표, 인터뷰 영상 준비하였음), 나머지 폐지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몇몇 소수 학생들은 별점을 부과해도 이를 신경쓰지 않아서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며 폐지해야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설문을 통해 대다수 학생들은 학생들의 인권이보장되는 한에서 교육 지도를 하는데 상벌점제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6. 학교에서 실시되는 상벌점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체벌 대신 시행 되어지는 상벌점제는 일정 별점을 받게 된 학생들에게 봉사, 청소와 같은 벌이 주어집니다. 체벌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에서 다른 형태의 체벌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봉사나 청소와 같은 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별점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나 청소를 하지 않으려고 별점을 받지 않게 노력하던 학생이 이러한 벌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별점에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별점을 받아도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점이 많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벌들을 다른 형태의 체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벌점제가 적용되는 규칙을 인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칙 하나하나를 학교 구성원 모두가 논의와 투표를 거쳐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규칙을 모든 구성원에 의해 만들어지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구성원 모두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은 사회적 통념에 의해 결정되고 그 규칙에 적용되는 상벌점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 7. 상벌점제도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답변: 대부분 상벌점제 벌점부과 기준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벌점에 대한 조항들을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하려하거나, 학교의 규정을 어길 시에 부과하는 내용들일 뿐이어서 학생을 협박하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교사가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할 경우 명분이 있어야 하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인권이 침해될만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 8. 상벌점제 현행대로 유지, 보완, 폐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벌점제는 취지는 좋으나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벌점을 많이 받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이 충분하지 않아 현재 많은 학교들이 상벌점제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상벌점제에 대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여러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상벌점제가 체벌을 없애고 학생들을 생활 지도를 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상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며, 벌점을 많이 보유한 학생들에게 시키는 봉사라든지 청소 등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체벌밖에 줄 수 없어 많이 아쉽다.” 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의견을 수렴하여 상벌점제도가 명확한 부과 기준을 가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벌점제의 필요성과 실시 의도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성을 증가시키는 등 이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9. 상벌점제를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가 된 지금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는 완만히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 자치 법정 회의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규정을 자주 어긴 학생을 교내 선생님들께서 서로 회의를 하여 학생회 임원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자치 법정회의를 개최해서 그 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 학생은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을 경우 학생을 변호하는 학생을 선임하여서 자신의 무고함을 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정회의 제도를 현재 울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는 실시중이며 그 학교 학생들은 이제도를 통해 학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하며 학교 규정을 어기는 횟수가 비교적 적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치 법정 회의 제도도 상벌점제를 대신할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10.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 학교, 학생 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상벌점제도와 관련하여

체벌이 금지되고 난 뒤 선생님들은 학생을 통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자칫하면 학생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겠다는 책임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인권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인 교사의 지위와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청과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다 수월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벌점제와 같은 강압적인 규율제도를 대신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친밀감을 형성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러 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관련 조항 및 구분

조항		권리
총칙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행복추구권 등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습권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학습권, 자기결정권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알권리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
제3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신체의 자유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안전권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휴식권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정보자기결정권, 알권리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제17조(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복지권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환경권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급식권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건강권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적법절차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상담신청 등